

‘무명의 반란’ KIA 황동하, 인생 역전 꿈꾼다



KIA타이거즈 투수 황동하가 지난달 13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진행된 마무리 훈련에서 라이브 피칭 훈련에 임하고 있다.

2022년 전체 65순위 KIA 행 정읍 인상고 유일 현역 프로 올해 대체 선발로 가치 증명 미국 과전서 구속 증가 기대



“인상고 야구부 역사 상 프로 지명자를 세 명 배출했지만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저 혼자 죠. 꼭 팀에 필요한 자원으로 거듭나서 학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자랑스러운 프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전북 정읍 소재 인상고를 졸업한 KIA 타이거즈 투수 황동하(21)의 각오다. 황동하는 2022 KBO 신인 드래프트 2차 7라운드(전체 65순위) 지명을 받아 KIA 유니폼을 입었다.

전국 대회 결승 진출 경험이 전무한 작은 학교에서 프로에 진출한 투수에게 주목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황동하가 인상고 투수진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정도만 알려졌다.

황동하는 올 시즌 대체 선발로 가능성을 알리며 무명의 반란 신호탄을 쏘았다.

지난해 퓨처스리그 21경기에서 55.2이닝을 소화하며 차분히 기회를 노렸고, 올 해 5월 손 앤더슨과 정해영, 김대유가 말소될 때 대신 1군에 등록되며 기회를 받았다.

그는 “작년에는 제구가 괜찮았다. 올해

는 구속만 조금 더 오르면 저도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올해 들어 평균 구속과 최고 구속이 모두 올랐다. 목표했던 구속이 오르면서 기회도 많이 받았고, 괜찮았던 시즌이라고 생각한다”고 총평을 남겼다.

황동하는 올해 1군에서 롱릴리프로 활약하면서 대체 선발 중책도 맡았다. 13경기에서 31.1이닝을 소화했고 평균자책점 6.61로 방어율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나 투구 템포와 제구 등에서 확실한 강점을 선보였다.

그는 “정신적으로 강한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1군에서 시합을 나가다 보니까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멘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김)건국 선배도 많이 도와줬다. 2군에 다시 내려갔을 때 ‘몸은 신경 쓰지 말고 생각을 다르게 해보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언급했다.

마운드의 기대주로 떠오르면서 프로 입성 후 처음으로 해외 마무리 훈련도 소화했다.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정재훈 투수 코치와 이동걸 불펜 코치의 집중 조련을 받았다.

황동하는 “평균 구속을 더 높이고 싶었는데 우선 몸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더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컨디션 좋을 때는 평균 구속이 145km 정도 나오는데 정신적으로 흔들리면 떨어진다. 꾸준히 145~146km

정도 나올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이어 “첫 라이브 피칭에서는 오랜만에 실전처럼 투구를 하니 긴장도 되고 다리도 마음대로 안 움직였다”며 “정신적으로 새롭게 무장을 해야 하는데 더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 시즌 도입되는 피치 클락에 대해서는 이미 적응을 마친 투수라는 평가도 나왔다. 올해 1군 마운드에서 가장 투구 템포가 빠른 투수였던 만큼 흐름을 오히려 느리게 가져가는 법을 배웠다.

황동하는 “템포가 빠른 것은 장점이지만 코치님들께서 너무 빠르다고 조언해주셨다. 특히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이 될 때 더 빠르다고 지적을 해주셨다”며 “좀 더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빠른 템포로 공을 던지도록 훈련을 했는데 포수 사인만 맞으면 피치 클락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마무리 캠프 기간 눈도장을 찍은 만큼 코치진의 기대감도 커졌다. 미국 시애틀의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에 투수진을 파견했는데 이 명단에 황동하가 발탁됐다. 가장 큰 목표인 구속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는 “올해 선발로 나갈 때도 있고 불펜으로 나갈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시점에는 나가지 못했다”며 “새 시즌에는 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 소크라테스와 120만달러 재계약

“꼭 우승 기쁨 안겨주겠다”

KIA타이거즈가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사진)와 동행 3년 차에 돌입한다. 계약금 30만달러와 연봉 50만달러, 옵션 40만달러 등 총액 120만달러에 재계약을 완료했다.

KIA는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와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소크라테스는 KBO리그 2년 차인 올해 142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5(547타수 156안타), 20홈런, 15도루, 96타점, 91득점 등을 기록했다.

안타와 홈런, 타점, 득점에서 팀 내 최



고 수치를 기록하며 중심 타자로 맹활약했다. 지난해 127경기에서 타율 0.311(514타수 160안타), 17홈런, 12도루, 77타점, 83득점을 기록했다.

을 기록했다.

재계약 후 홈런과 도루, 타점, 득점 모두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소크라테스는 구단을 통해 “내년에도 KIA타이거즈와 동행하게 돼 기쁘다”며 “동료들과 새 시즌을 잘 준비해 팬들에게 꼭 우승의 기쁨을 안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체육중 역도, 중고역도연맹회장기 메달 잔치

금 6·은 3·동 3개 수확 김체량·이다은 각 3관왕

광주체육중학교 역도 선수단이 2023한국 중고역도연맹회장기 전국역도대회에서 메달 잔치를 벌였다.

광주체육중 학교부는 지난 14~17일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김체량(3년)이 여중부 +81kg급에서 인상 75kg, 용상 105kg, 합계 180kg을 들어 3관왕을 차지했다.

김체량은 인상 1차시기에서 65kg을 성공시킨 뒤 2차시기 70kg, 3차시기 75kg을 들어 1위를 확정지었다. 용상에서도 1차시기 95kg으로 1위를 확정지은 뒤 2차시

기에서 100kg을, 3차시기에서 105kg을 성공시켜 1위를 차지했다. 합계에서도 180kg으로 1위에 올랐다.

김체량은 지난 5월 울산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3개의 금빛 바벨을 들어올리며 이 체급 최강 역사임을 알렸다. 이다은(2년)도 여중부 -81kg급에서 인상 71kg, 용상 88kg, 합계 159kg을 들어올려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영지(1년)는 여중부 -76kg급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유영지는 인상 41kg 2위, 용상 45kg 2위, 합계 86kg 2위를 각각 기록했다. 김효민(2년)은 여중부 +81kg급에서 동메달 3개를 거머쥐었다. 김효민은 인상 60kg 3위, 용상 71kg 3위, 합계 131kg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FC 이순민, 亞컵 대비 훈련 발탁… 카타르행 노린다

클린스만호, 훈련 소집 명단 28일 최종 엔트리 26명 발표

광주FC 중원 핵심 이순민이 내년 1월 열리는 2023 AFC(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을 노린다. 이순민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실시되는 아시안컵 대비 A대표팀 국내 훈련에 소집돼 담금질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2023 AFC 아시안컵 대비 A대표팀 국내 훈련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소집 명단은 이순민을 비롯해 조현우와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설영우(이상 울산HD), 김진수와 문선민, 박진섭(이상 전북현대), 이기제(수원삼성), 김주성(FC서울) 등 아시안컵 최종 명단 후보에 있는 K리그 위주로 구성됐다.

또 송범근(쇼난 벨마레·일본)과 이재성(FSV 마인츠 05·독일), 황인범(FK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 정우영(VfB 슈투트가르트·독일), 조규성(FC 미트윌란·덴마크) 등 소집 훈련에 응할 수 있는 일부 해외파도 포함됐다.

이번 소집 훈련은 오는 26일부터 31일



광주FC 소속의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이순민(왼쪽)이 지난 9월8일(한국시간) 웨일스 카디프시티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일스와 친선경기에서 A대표팀 데뷔전을 치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까지 서울 소재 호텔에서 A대표팀 베르너 로이타드 피지컬 코치와 이재홍 피지컬 코치가 진행한다. 실내 훈련으로만 진행하며 웨이트 트레이닝과 컨디셔닝 등을 통해 최근 시즌을 마친 선수들의 체력 상태와 피로도 등을 점검하고 컨디션 유지에 집중한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여러 선수들이 시즌을 마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대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선수들이 적절한 휴식과 훈련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고 카타르로 떠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아시안컵은 AFC에 등록할 수 있는 최종 엔트리가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됐다. 최종 명단은 오는 28일 발표 예정이며 참가 팀들은 매 경기 23명의 선수를 엔트리에 포함할 수 있다.

한규빈 기자

2023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에어로빅합창대회 성료

2023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에어로빅합창대회가 지난 17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대한체육회·광주시체육회·광주에어로빅합창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이번 대

회에는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한 팀을 이룬 초(U-12)·중(U-15)·고등학생(U-18) 14팀 총 42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에게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문화행사와 포토존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운 경험

도 제공했다. 문화행사는 정성찬 등 8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시범 공연을 선보였다.

광주시체육회는 앞서 지난 9월 유도, 축구 종목의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을 개최해 총 440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최동환 기자